

## 아동 친화적인 도시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식

Children and Adolescents' Assessments of Child Friendly Cities

홍승애(Seung Ae Hong)<sup>1)</sup>

이재연(Jae Yeon Lee)<sup>2)</sup>

### ABSTRACT

Child Friendly Cities (CFC) is a framework for action with the aim of implementing the UN CRC led by local government in an urban context. A number of surveys with 755 children and adolescents were conducted in order to assess the community's child-friendliness level of Seoul.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 city's child-friendliness was overall seen to be negative. 2) In regards to the city's child-friendliness, the assessments of Children were more positive than those of the adolescents. 3) Boys assessed the city's child-friendliness more positively than girls. 4) The children and adolescents living in more wealthy communities assessed the city's child-friendliness more positively than those living in poorer areas. This study suggested that a local action plan for the Child Friendly Cities must be implemented to fulfill the CFC standards.

**Key Words** : 아동 친화 도시(Child Friendly Cities), 아동 친화 지역사회(Child Friendly Communities), 아동 권리(Children's Rights), 도시화(Urbanization).

### I. 서 론

지난 수세기 동안 급속도로 진행되어온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전 세계 대부분의 아동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화 비율은 점

점 가속화 되어 2025년까지 전 세계 아동의 60%가 도시에 살게 될 전망이다(UN, 2007). 이에 따라 수백만 아동의 일상과 경험이 도시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으며, 아동은 도시화에 따른 여

<sup>1)</sup>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sup>2)</sup>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eung Ae Hong, Dept. of Child Welfare &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52 Hyochnghwon-Gil, Yongsan-Gu, Seoul 140-742, Korea  
E-mail : childncity@naver.com

러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노출되어 있다 (Christensen & O'Brien, 2003).

도시에서 사는 아동은 학교교육, 문화 활동, 취미·여가활동, 종교 활동, 건강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도시 생활을 향유할 수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깨끗한 식수와 화장실, 잘 발달된 교통체계, 효율적인 전기·난방시설 등 보다 좋은 물리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다(Malone, 2006). 이러한 도시 안의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적·물리적 환경은 잠재적으로 아동의 성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Riggio, 2002).

그러나 인구 밀집으로 인한 혼잡과 경제논리에 따른 도시 환경은 아동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주거공간의 협소, 교통 혼잡, 환경오염, 녹지공간의 상실, 놀이 공간의 부족, 지역사회 이웃의 무관심과 익명성은 아동의 삶의 질을 저해하며, 도시 슬럼지역의 각종 폭력과 착취, 그리고 범죄행위는 아동의 삶을 위협한다(UNICEF, 1996). 이에 따라 도시 환경은 아동에게 안전하지 못하며 오히려 발달을 저해하는 위협적인 공간이 되고 있다(Riggio, 2002).

도시와 지역사회 내의 위험요소 증가는 결과적으로 부모로 하여금 아동을 더욱 과잉보호하게 만들었다. 부모들은 아동을 '보호'를 일차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공간 안으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Gill, 2008). 일차적인 보호는 아동을 위협으로부터 희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UNICEF, 1996). 실제로 도시에서 사는 4~8세 아동은 농촌 지역에 사는 아동 보다 외부 환경에 대한 공포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외부 환경에 대한 공포심은 결국 사람에 대한 공포로 이어져 공격적인 성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Malone, 2009). 또한 야외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적고,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아동일수록 우울과 스트레스, 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Louv, 2006). 결국 부모의 감시 아래 이루어지는 제한적인 활동은 도시의 위험 요소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것만큼이나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도시 생활양식의 변화 또한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인소유의 자동차 증가, 대중교통의 발달, 맞벌이 가정의 증가, 교육제도의 변화 등은 아동의 자유로운 일상을 빼앗고 아동을 시설에서 시설로 이동하게 만들었다(Freeman, 2006). 아동의 일상생활은 학교, 보육센터, 방과 후 학원, 실내 놀이 공간, 쇼펜센터, 클럽 위주로 짜여져 있으며 한정된 틀 속에서 한정된 공간으로만 이동하고 있다. 호주 아동 4만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 아동은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 졌지만, 시간은 언제나 부족하고 사회화 기술이 부족하며, 자유시간의 대부분을 잘 짜여진 실내 프로그램(방과 후 스포츠, 클럽활동, 학원 등)을 수행하며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Houlihan, 2005). 또한 영국의 조사에 따르면 1990년에는 초등학교가 혼자 걸어서 등교하는 아동의 비율이 70%였지만, 2010년에는 단지 40% 아동만이 혼자 걸어서 등교하며, 부모의 동행 없이 혼자 집 밖을 나갈 수 있는 연령이 청소년기인 14세로 조사되었다(Shaw, 2010). 즉, 아동기 전체를 성인의 감시와 보호 아래서 보내는 것이다. 이러한 일상생활의 변화로 인해 아동은 운동능력, 비만 등 신체발달이 저하되고 있으며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 위협에 대처하는 기술, 낯선 곳을 탐험하는 전략 등도 매우 미숙한 것으로 나타났다(Gill, 2008).

최근 유니세프(2007)의 21개국에 대한 조사결과 일상생활에서 지역사회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보다 자유를 만끽하는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들은 가족과 또래와의 관계도 보다 긍정적이었으며 행동문제도 훨씬 적었고 비만 비율도 낮았다(Foresight, 2007). 결국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만이 아동의 성장 발달 위한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즉,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신만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와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아동 최우선의 관점이 반영된 아동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이 필수적인 것이다.

아동 친화적인 도시(Child Friendly Cities : CFC)는 도시와 지역사회 환경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이 위협에 처해 있는 도시와 사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재연·황옥경·이은주, 2008). 아동 친화적인 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과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협약을 온전히 이행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는데 지방정부는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단위이며, 중앙정부의 변화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위이기 때문이다(UNICEF, 1996). 또한 지방정부는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서비스와 자원을 다양하게 제공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경제적 여건과 생활환경 수준에 따라 아동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UNICEF, 2010a).

현재 이탈리아, 캐나다, 브라질, 필리핀, 스페인, 러시아, 프랑스, 요르단 등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도시에서 아동 친화적인 도시 만들기ye 동참하고 있으며, 법률, 정책, 도시 디자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의식 개선까지 도시민 전체가

협력하여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UNICEF, 1996). 이와 같이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아동의 성장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데, 급속도로 진행되는 도시화와 그에 따른 아동의 성장 환경 악화는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화 비율은 일본, 미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다(이왕건, 2010). 특히 대도시인 서울은 지난 50여 년간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구 급증과 도시의 공간적 확대 등 도시의 양적 성장을 단기간에 경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맹다미, 2009). 이로 인해 서울의 전반적인 환경은 복잡한 교통, 환경오염, 녹지 공간의 부족, 상대적 빈곤의 심화, 유해환경 증가 등 아동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아동·청소년의 사망율은 17.15%로 전국대비 높은 비율이며, 방과 후 여가활동 장소는 집이 48.4%, 학원이 26.8%로 야외 활동이 전무하며, 비만율은 18.8%로 미국의 소아 비만율(14~17%)보다 높으며, 아토피 피부염도 초등학생의 29.2%가 발병하여 미국(10%)의 발병율 보다 약 3배가 높은 상황이다(이재연 외, 2008). 이처럼 도시 환경이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울시 아동·청소년 정책은 복지시설 운영과 어려운 아동들에 대한 보호 위주로 추진되어 아동들의 욕구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이재연 외, 2008).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서울시는 「제 1기·제 2기 서울 꿈나무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의 요보호 중심의 아동정책에서 탈피하여 일반 아동·청소년의 성장환경을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편적 아동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동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생활 근거지에 대한 조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식을 연령과 성별 그리고 지역에 따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인식과 욕구 파악을 통해 아동 친화적인 도시 구축을 위한 정책목표와 세부지표를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3개 자치구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총 9개교 18학급의 75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자치구별로 같은 동에 소재한 학교를 선정하였으며 초등학교 1~2학년 2학급, 4학년 2학급, 6학년 2학급, 중학교 2학년 2학급, 고등학교 2학년 2학급을 임의로 선정하여 각 학급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755명 중 아들은 410명(54.3%), 청소년은 347명(45.7%)이며,

남아는 391명(51.7%), 여아는 364명(48.3%)이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 지역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상(8개 자치구)·중(9개 자치구)·하(8개 자치구)로 구분하여, 상·중·하 내에서는 인구, 주거환경, 산업경제, 기반시설, 공공시설부문 등 총 26개 지표를 통해 생활환경 특성을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각 1곳을 선정하였다(맹다미, 2009; 이재원, 2006).

‘경제수준 상위 구’로 선정한 곳은 인구의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주거환경 및 기반 공공시설의 수준 또한 매우 양호한 특성을 가진 자치구이며, ‘경제수준 중위 구’로 선정한 자치구는 주거수준은 비교적 양호하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며, 1인당 도시공원 면적과 도로교통 기반시설이 낮고, 문화·복지·의료·교육시설의 추가적인 공급이 필요한 특성을 가진다. ‘경제수준 하위 구’로 선정한 자치구는 낮은 경제적 수준과 기반, 문화 시설 등이 부족하고, 또한 주택과 학교 건물의 노후도가 높은 편이다(맹다미, 2009).

‘경제수준 상위 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공공시설(도서관, 복지관, 문화센터 등)비율이 높은 동을 선정하였으며(서울시 통계자료서비스), ‘경제수준 중·하위 구’에서는 교육복지우선투자학교로 선정된 초, 중

<표 1> 아동 및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N(%)

변인		8~9세 (초등1~2학년)	11세 (초등 4학년)	13세 (초등 6학년)	15세 (중등 2학년)	17세 (고등 2학년)	전체
성별	남	56(14.3)	97(24.8)	73(18.7)	95(24.3)	70(17.9)	391(100)
	여	30(8.2)	73(20.5)	79(21.6)	77(21.0)	105(28.7)	366(100)
지역	경제수준상위 구	27(10.8)	55(22.0)	50(20.0)	58(23.2)	60(24.0)	250(100)
	경제수준중위 구	29(11.4)	56(22.8)	50(19.7)	58(22.8)	59(23.2)	254(100)
	경제수준하위 구	30(11.9)	59(23.3)	52(20.6)	56(22.1)	56(22.1)	253(100)
합계		86(11.4)	170(22.7)	152(20.1)	172(22.7)	175(23.1)	755(100)

학교와 같은 동에 있는 인근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 2. 측정도구

도시와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유니세프(2010a)가 개발한 ‘아동 친화 지역사회 척도(Child Friendly Community Assessment)’를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번안한 내용 및 용어가 우리나라 아동에게 적용함에 있어 적당하지 않음을 검증하기 위해 영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통한 박사 2인, 초등

학교 교사 2인, 중학교 교사 1인에게 그 타당성을 의뢰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척도의 내적 신뢰도를 측정된 결과 아동용의 경우 Cronbach  $\alpha$  .95, 청소년용의 경우 Cronbach  $\alpha$  .91이며, 하위 영역별 신뢰도 Cronbach  $\alpha$  .70 이상으로 모두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척도는 아동의 놀이와여가(7문항), 학교생활(21문항), 안전과보호(9문항) 등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용 설문지는 60문항, 청소년용 설문지는 66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 ‘가끔 그렇다(1점)’, ‘대체로 그렇다(2점)’, ‘언제나 그렇다(3점)’까지 리커트식

<표 2> 척도의 구성

영역	내용	문항수		신뢰도	
		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
놀이와여가 (Play and Recreation)	야외놀이, 친구와의 교류, 녹지 공간, 문화행사 참가, 여가활동 참여, 신체장애아의 놀이 장소 조성 등	7	7	.81	.74
지역사회유대관계 (My Community)	지역사회에서 아동을 대하는 태도, 지역주민간의 유대감, 외국인에 대한 차별,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지역사회 정책 참여, 아동권리 홍보와 교육, 아동권리 이행 정도 등	10	10	.83	.72
안전과보호 (My Safety and protection)	교통체계, 유해환경, 안전한 통학로, 범죄 및 폭력, 아동보호 기관 설치,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주민의 노력 등	9	9	.87	.83
학교생활 (My School)	학교의 물리적 환경, 학교에서 아동권리 교육, 남녀평등 정도, 환경보호 교육, 교과과정 만족도, 교사와의 신뢰 및 유대감, 또래간의 차별 및 폭력, 다문화 아동에 대한 차별정도,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 신체적 체벌정도, 아동의 의견 존중 등	21	21+2	.82	.84
	청소년>성교육, 직업교육, 직업 훈련 프로그램 여부 등 2문항 추가				
개인생활 (My Personal life)	가정의 물리적 환경, 집주변 유해환경, 이웃 간의 관심 및 온정적 태도, 타인의 권리 존중, 종교 활동의 자유 등	12	12+4	.81	.75
	청소년>에이즈에 관한 정보제공, 편리한 피임기구 구입, 각종 약물, 조직폭력, 갱으로부터 안전 등 4문항 추가				
합계		60	66	.95	.91

4점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평균 점수의 국제 간 비교를 위해 유니세프가 개발한 점수 환원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 하는 것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지역사회 환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점수가 높을수록 보다 아동 친화적인 도시와 지역사회로 볼 수 있다(UNICEF, 2009).

유니세프가 개발한 척도에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을 위한 1문항(‘정규 수업을 받지 않는 아동을 위한 대안 학교가 있다’)이 포함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학교생활 영역의 1 문항을 제외하였다.

###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조사에 앞서 문항에 대한 내용 및 용어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4학년 2개 학급 45명, 중학교 2학년 1개 학급 30명 총 7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내용을 토대로 대상아동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과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초등학교 교사 2인과 중학교 교사 1인과의 토의를 통해 최종 문항을 작성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 소재 9개의 18학급 초·중·고등학생 75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초등학교 1~2학년 아동의 경우 설문지에 의한 자기보고 형식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선생님의 협조를 얻어 방과 후 교실에서 한 문항씩 내용을 설명한 뒤 아동이 응답을 문항에 체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총 780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755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해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연령별, 성별, 지역별로 아동·청소년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 III 결과분석

### 1. 아동 친화적인 도시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식

도시와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전체 인식 점수는 1.2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생활하는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는 ‘대체로 그렇다’인 2점을 기준으로 볼 때 비교적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아동 친화적인 도시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각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개인 생활( $M = 2.04$ ,  $SD = 0.52$ )영역은 2점 이상의 점수를 보여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학교생활( $M = 1.83$ ,  $SD = 0.61$ )영역과 안전과보호( $M = 1.59$ ,  $SD = 0.75$ )영역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놀이와여가( $M = 1.29$ ,  $SD = 0.69$ )는 비교적 부정적 인식을 하였으며, 지역사회유대관계( $M = 1.09$ ,  $SD = 0.57$ )는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즉, 아동·청소년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거환경 및 집 주변 물리적 환경이 가장 잘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학교의 물리적 환경, 교과과정, 교사 및 친구와의 유대관계, 차별 및 폭력,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정도 등 학교생활 전반과 도시와 지역사회 내 교통체계, 범죄와 폭

<표 3> 아동·청소년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인식

연령	성별	N	놀이와 여가		지역사회 유대관계		안전과 보호		학교생활		개인생활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8~9세 (a)	남(a)	56	1.29	.96	.86	.64	1.58	.90	1.90	.72	1.95	.75	6.01	3.09
	여(b)	30	1.13	1.01	1.02	.79	1.25	1.19	1.86	.67	1.88	.66	5.63	3.53
	합계	86	1.24	.97	.92	.69	1.46	1.01	1.89	.70	1.93	.72	5.88	3.23
11세 (b)	남(a)	97	1.37	.72	1.15	.71	1.85	.73	2.02	.66	2.13	.59	6.82	2.42
	여(b)	73	1.30	.75	1.07	.55	1.58	.81	1.90	.70	1.97	.59	6.24	2.46
	합계	172	1.34	.73	1.12	.64	1.74	.77	1.97	.68	2.06	.60	6.57	2.44
13세 (c)	남(a)	73	1.38	.70	1.27	.58	2.05	.62	2.17	.55	2.31	.45	7.33	1.79
	여(b)	79	1.35	.74	1.17	.57	1.50	.79	2.33	.49	2.16	.49	6.77	2.17
	합계	152	1.36	.71	1.22	.57	1.76	.76	2.25	.52	2.23	.48	7.04	2.01
15세 (d)	남(a)	95	1.32	.65	.99	.48	1.55	.65	1.62	.48	1.78	.43	5.93	1.91
	여(b)	77	1.09	.34	.98	.41	1.19	.44	1.39	.32	1.86	.35	5.02	1.10
	합계	172	1.27	.56	.98	.45	1.40	.59	1.52	.43	1.82	.40	5.52	1.65
17세 (e)	남(a)	70	1.31	.65	1.18	.60	1.55	.70	1.61	.45	2.05	.41	6.03	2.02
	여(b)	105	1.16	.46	1.11	.36	1.30	.59	1.60	.40	2.17	.31	5.88	1.42
	합계	175	1.22	.54	1.14	.47	1.57	.63	1.60	.42	2.12	.36	5.94	1.68
전체	남	391	1.36	.72	1.10	.62	1.73	.73	1.86	.62	2.04	.56	6.44	2.30
	여	364	1.21	.63	1.08	.51	1.45	.74	1.80	.60	2.04	.48	5.95	2.09
	합계	755	1.29	.69	1.09	.57	1.59	.75	1.83	.61	2.04	.52	6.20	2.22

력, 유해환경, 아동보호기관 설치 유무 등 아동의 안전과보호를 위한 환경도 비교적 잘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반면, 놀이와 여가를 위한 공간, 시간, 프로그램, 자연을 접할 기회 등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였으며, 도시와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 하는 태도,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의 참여 및 노력, 아동·청소년의 참여활동,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을 위한 활동 등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다.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아동의 경우 ‘집에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충분하다(M = 2.85)’, ‘집에 씻을 수 있는 물이 충분하다(M = 2.73)’, ‘학교에는 마실 수 있는 물이 충분하다(M = 2.76)’, ‘학교에는 씻을 수 있는 물이 충분하다(M = 2.57)’, ‘내가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다(M = 2.51)’ 이상의 문항은 3점에 가까운 점수를 나타내어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하는 일을 잘 알고 있으며 중요한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다(M = 0.28)’, ‘서울시정과 시책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중요한 결정과정에 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M = 0.35)’,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놀이공간은 신체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M = 0.54)’,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와 지역사회를 보다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M = 0.55)’ 문항은 0점에 가까운 점수를 나타내어 이상의 문항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청소년의 경우 ‘집에는 씻을 수 있는 물이 충분하다(M = 2.79)’, ‘집에는

마실 수 있는 물이 충분하다( $M = 2.78$ ), ‘집 혹은 집 근처에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 $M = 2.61$ )’, ‘나는 각종 약물(마약, 대마초, 본드 등)을 하지 않는다( $M = 2.46$ )’ 이상의 문항은 3점에 가까운 점수를 나타내어 청소년의 인식이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하는 일을 잘 알고 있으며 중요한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M = 0.45$ )’,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와 지역사회를 보다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M = 0.51$ )’, ‘나는 콘돔과 같은 피임기구를 쉽게 구할 수 있다( $M = 0.58$ )’, 서울시정과 시책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 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M = 0.65$ ) 문항은 0점에 가까운 점수를 나타내어 이상의 문항은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동의 경우 집과 학교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제공받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종교의 자유도 보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시와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는 참여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장애를 가진 아동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의 조성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경우도 집과 학교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제공받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해로운 약물에 노출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시와 지역사회에서 참여 활동이 전무하며 성과 관련된 일탈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 2. 연령과 성별에 따른 도시환경에 대한 인식

아동·청소년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전체 영역에 대한 인식은 연령( $F = 12.811, p$

$< .001$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Scheffe 사후검증 결과 13세가 15세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성별( $F = 9.610, p < .05$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아( $M = 6.44, SD = 2.30$ )가 여아( $M = 5.95, SD = 2.09$ )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놀이와여가 영역은 연령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 $F = 8.100, p < .001$ )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아( $M = 1.36, SD = 0.72$ )가 여아( $M = 1.21, SD = 0.63$ )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남아가 신체 놀이 활동과 여가를 보다 즐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유대관계 영역은 연령에 따라( $F = 5.471, p < .001$ )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13세가 15세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령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즉, 13세 아동이 15세 보다 도시와 지역사회에 대한 유대감이 높고 지역사회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전과보호 영역은 연령( $F = 8.807, p < .001$ )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13세가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11세, 8~9세 순으로 긍정적 인식이 높았다. 성별( $F = 29.170, p < .001$ )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아( $M = 1.73, SD = 0.73$ )가 여아( $M = 1.45, SD = 0.74$ )에 비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초등학교 저학년과 여아가 지역사회 내 교통체계와 범죄와 폭력에 대한 위험성 지각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과보호에 대한 욕구도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4> 아동·청소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이원분산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Scheffe'
놀이와 여가	연령	2.323	4	.581	1.251	-
	성별	3.760	1	3.760	8.100*	a>b
	연령×성별	2.287	4	.527	1.232	
	오차	345.800	745	.464		
	합계	1611.184	755			
지역사회 유대관계	연령	6.845	4	1.711	5.471*	c>d
	성별	.075	1	.075	.240	-
	연령×성별	1.053	4	.263	.842	
	오차	233.007	745	.313		
	합계	1136.983	755			
안전과 보호	연령	18.065	4	4.516	8.807***	c>b>a
	성별	14.958	1	14.958	29.170**	a>b
	연령×성별	7.126	4	1.782	3.474	
	오차	382.025	745	.513		
	합계	23339.790	755			
학교생활	연령	55.963	4	.393	47.543***	c>d
	성별	.393	1	.836	1.335	-
	연령×성별	3.346	4	.294	2.842*	
	오차	219.235	745	.294		
	합계	2805.139	755			
개인생활	연령	15.755	4	3.939	15.885***	c>e
	성별	.244	1	.244	.984	-
	연령×성별	2.784	4	.696	2.807*	
	오차	183.736	745	.248		
	합계	3321.560	755			
전체	연령	235.490	4	58.872	12.811***	c>d
	성별	44.162	1	44.162	9.610**	a>b
	연령×성별	12.600	4	3.150	.685	
	오차	3405.302	745	4.596		
	합계	32649.765	755			

\* $p < .05$ . \*\* $p < .01$ . \*\*\* $p < .001$ . 연령 : a=8~9세, b=11세, c=13세, d=15세, e=17세/성별 : a=남자, b=여자

학교생활 영역은 연령( $F = 47.543, p < .001$ )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13세가 15세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과 성별( $F = 2.842, p < .05$ )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남아의 평균이 높았으나 13세의 경우 여아( $M$

$= 2.33, SD = 0.49$ )가 남아( $M = 2.17, SD = 0.55$ )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나 초등학교 6학년 여아가 학교생활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생활 영역은 연령( $F = 15.885, p < .001$ )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13세가 17세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성별에 따라

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연령과 성별( $F = 2.807, p < .05$ )에 따른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 걸쳐 남아의 평균이 여아보다 높았으나 15세( $M = 1.86, SD = 0.35$ )와 17세( $M = 2.17, SD = 0.31$ )는 여아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인 15세, 17세 여아가 주거환경 및 집 주변의 물리적 환경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연령에 따라서는 13세가 15세 보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가 여아 보다 아동 친화적 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유대관계, 학교생활 영역은 13세가 15세 보다, 안전과보호는 13세가 11세, 8~9세 보다, 개인생활은 13세가 17세 보다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놀이와여가, 안전과보호 영역은 남아가 여아 보다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생활과 개인생활 영역의 경우 연령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는데, 모든 연령대에 걸쳐 남아의 인식이 높게 나타났지만 학교생활 영역은 13세 여아의 인식이 남아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생활 영역은 15세, 17세 여아의 인식이 남아 보다 높게 나타났다.

### 3. 지역과 연령에 따른 도시환경에 대한 인식

아동·청소년의 지역 및 연령에 따른 인식은 표 5와 같다. 경제수준 상위 구( $M = 6.99, SD = 1.98$ )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인식이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수준 중위 구( $M = 6.32, SD = 2.01$ ), 경제수준 하위 구( $M = 5.31, SD = 2.32$ ) 순으로 긍정적 인식이 높았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세 지역 모두 개인생활, 학교생활, 안전과보호, 놀이와여가, 지역사회유대관계 영역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았다.

지역 및 연령에 따른 도시와 지역사회 환경에 인식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6와 같다. 전체 영역에 대한 인식에서 지역( $F = 67.541, p < .001$ )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Scheffe 사후검증 결과 경제수준 상위 구의 아동·청소년의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경제수준 중위 구, 경제수준 하위 구순으로 인식이 높았다. 연령( $F = 15.344, p < .001$ )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13세 아동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15세, 17세 순으로 긍정적 인식이 높았다. 지역과 연령( $F = 13.853, p < .001$ )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났다. 경제수준 상위 구는 경제수준 중·하위구와 달리 8~9세 아동의 긍정적 인식이 높았다. 즉, 경제수준 상위 구는 보호와 돌봄이 더욱 필요한 연령이 낮은 아동을 위한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적·물리적 환경이 보다 양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놀이와여가 영역은 지역( $F = 49.398, p < .001$ )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경제수준 상위 구 아동·청소년의 긍정적 인식이 높았고, 경제수준 중위 구, 하위 구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과 연령( $F = 9.829, p < .001$ )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경제수준 하위 구의 경우 8~9세와 11세의 평균점수가 상·중위 구와 다르게 극히 낮게 나타났다. 즉, 경제수준 하위 구의 경우 놀이와 여가의 욕구가 가장 큰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즐길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상·중위 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취약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지역사회유대관계 영역은 지역( $F = 22.858, p < .001$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경제수준 상위 구 아동·청소년의 긍정적 인식이

<표 5> 아동·청소년의 지역 및 연령에 따른 인식

지역	아동 연령	N	놀이와 여가		지역사회유대 관계		안전과 보호		학교생활		개인생활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상위 구 (a)	8~9세(a)	27	2.04	.49	1.36	.68	2.13	.57	2.28	.35	2.48	.20	8.39	1.74
	경제 수준 11세(b)	55	1.55	.63	1.31	.56	2.03	.60	2.38	.52	2.31	.34	7.62	1.74
	13세(c)	50	1.57	.64	1.31	.57	1.91	.66	2.48	.40	2.39	.31	7.75	1.66
	15세(d)	58	1.36	.52	1.12	.52	1.51	.54	1.45	.48	2.02	.31	5.83	1.64
	17세(e)	60	1.32	.60	1.16	.56	1.67	.63	1.62	.46	2.19	.33	6.20	1.95
합계	250	1.51	.62	1.23	.57	1.81	.64	1.98	.63	2.25	.34	6.99	1.98	
중위 구 (b)	8~9세(a)	29	1.36	.81	.95	.66	1.74	.91	2.11	.56	2.12	.55	6.55	2.64
	경제 수준 11세(b)	58	1.52	.65	1.27	.59	1.93	.53	2.12	.61	2.24	.42	7.28	1.82
	13세(c)	50	1.38	.71	1.21	.55	1.74	.68	2.24	.47	2.32	.40	7.02	1.86
	15세(d)	58	1.19	.61	.77	.31	1.34	.61	1.57	.44	1.79	.41	5.23	1.69
	17세(e)	59	1.15	.52	1.12	.45	1.52	.65	1.54	.39	2.19	.28	5.76	1.56
합계	254	1.31	.66	1.07	.54	1.64	.69	1.88	.58	2.13	.44	6.32	2.01	
하위 구 (c)	8~9세(a)	30	.40	.77	.48	.44	.61	.83	1.81	.53	1.24	.61	5.88	3.23
	경제 수준 11세(b)	57	.95	.75	.78	.64	1.25	.89	1.83	.67	1.63	.71	4.83	2.66
	13세(c)	52	1.26	.74	1.13	.59	1.65	.90	2.04	.58	1.99	.58	6.37	2.24
	15세(d)	56	1.15	.53	1.07	.43	1.35	.62	1.53	.36	1.64	.38	5.53	1.60
	17세(e)	56	1.19	.51	1.14	.40	1.51	.61	1.65	.40	1.97	.42	5.86	1.47
합계	251	1.05	.70	.96	.56	1.34	.83	1.63	.57	1.73	.59	5.31	2.32	
전체	8~9세(a)	86	1.24	.97	.92	.69	1.46	1.01	1.89	.70	1.93	.72	5.88	3.23
	11세(b)	170	1.34	.73	1.12	.64	1.74	.77	1.97	.68	2.06	.60	6.57	2.44
	13세(c)	152	1.36	.71	1.22	.57	1.76	.76	2.25	.52	2.23	.48	7.04	2.01
	15세(d)	172	1.27	.56	.98	.45	1.40	.59	1.52	.43	1.82	.40	5.52	1.65
	17세(e)	175	1.22	.54	1.14	.47	1.57	.63	1.60	.42	2.12	.36	5.94	1.68
합계	755	1.29	.69	1.09	.57	1.59	.75	1.83	.61	2.04	.52	6.20	2.22	

경제수준 중위 구 아동·청소년 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 $F = 6.339, p < .001$ )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13세의 긍정적 인식이 15세 보다 높았다. 지역과 연령( $F = 7.388, p < .001$ )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경제수준 상위 구의 경우 경제수준 중·하위 구와 다르게 8~9세의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즉, 경제수준 상위 구는 초등학교 저학년도 도시와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유대

감과 애착감이 높으며, 지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전과보호 영역은, 지역( $F = 42.173, p < .001$ )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경제수준 상위 구 아동·청소년의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고, 경제수준 중위 구, 하위 구순으로 높았다. 연령( $F = 8.457, p < .001$ )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13세가 8~9세 보다 긍정적 인식이 높았다. 지역과 연령( $F = 8.145, p < .001$ )

<표 6> 아동·청소년의 지역 및 연령에 따른 이원분산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Scheffe'
놀이와 여가	지역	39.266	2	19.633	49.398***	a>b>c
	아동연령	2.270	4	.567	1.428	-
	지역×아동연령	31.252	8	3.907	9.829***	
	오차	294.110	740	.397		
	합계	1611.184	755			
지역사회 유대관계	지역	12.869	2	6.434	22.858***	a>b
	아동연령	7.138	4	1.784	6.339***	c>d
	지역×아동연령	16.637	8	2.080	7.388***	
	오차	208.308	740	.281		
	합계	1136.983	755			
안전과 보호	지역	39.387	2	19.693	42.173***	a>b>c
	아동연령	15.796	4	3.949	8.457***	c>a
	지역×아동연령	30.426	8	3.803	8.145***	
	오차	345.557	740	.467		
	합계	2339.790	755			
학교생활	지역	24.835	2	12.418	51.434***	a>c
	아동연령	56.838	4	14.210	58.856***	c>d
	지역×아동연령	26.587	8	3.323	6.248	
	오차	178.657	740	.241		
	합계	2805.139	755			
개인생활	지역	43.151	2	21.575	116.142***	a>b>c
	아동연령	15.895	4	3.974	21.391***	c>b>a
	지역×아동연령	13.794	8	1.724	9.282***	
	오차	136.724	736	.186		
	합계	3321.560	755			
전체	지역	495.889	2	247.945	67.541***	a>b>c
	아동연령	225.313	4	56.328	15.344***	c>d>e
	지역×아동연령	406.832	8	50.854	13.853***	
	오차	2701.853	736	3.671		
	합계	32649.861	755			

\*\*\* $p < .001$ . 지역 : a=경제수준 상위 구, b=경제수준 중위 구, c=경제수준 하위 구/연령 : a=8~9세, b=11세, c=13세, d=15세, e=17세

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경제수준 상위 구는 연령이 낮은 아동의 긍정적 인식이 높았다. 즉, 경제수준 상위 구는 안전과보호가 더욱 필요한 연령이 낮은 아동을 위한 물리적 환경이 더욱 잘 갖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 영역은, 지역( $F = 51.434, p < .001$ )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경제수준 상위 구와 하위 구와의 차이만이 유의미 하였다. 즉, 경제수준 상위 구 아동·청소년이 경제수준 하위 구 아동 보다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인식이 긍정적인 것이다. 연령( $F = 58.856, p <$

.001)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13세가 15세 보다 긍정적 인식이 높았다. 지역과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이 중학생 보다 학교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경제수준 상·중위 구의 학교 환경이 하위 구 보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인생활 영역은, 지역( $F = 116.142, p < .001$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경제수준 상위 구 아동·청소년의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고, 경제수준 중위 구, 하위 구순으로 높았다. 연령( $F = 21.391, p < .001$ )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13세의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11세, 8~9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과 연령( $F = 9.282, p < .001$ )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경제 수준 상·중위 구는 연령이 낮은 아동의 긍정적 인식이 높은 반면, 하위 구는 연령이 낮은 아동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수준 하위 구는 연령이 낮은 아동이 생활하기에 주거환경과 집 주변 물리적 환경이 보다 취약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전체적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경제수준 상위, 중위, 하위 순으로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13세, 11세, 17세 순으로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놀이와여가, 안전과 보호, 개인생활 영역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지역사회유대관계 영역은 경제수준 상위 구와 중위 구, 학교생활 영역은 경제수준 상위 구와 하위 구와의 차이만 유의미 하였다. 지역사회유대관계, 학교생활 영역은 13세가 15세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안전과보호 영역에서는 13세가 8~9세 보다, 개인생활영역에서는 13세, 11세, 17세 순으로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

다. 또한 학교생활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 걸쳐 상호작용 효과가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재정자립도와 생활환경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아동을 위한 생활환경 및 욕구가 더 잘 충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보다 아동 친화적인 지역 사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영역에 걸쳐 지역, 성별에 그리고 지역과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생략).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보장되고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동 친화적인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인식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과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아동·청소년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와 지역사회 환경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발달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랄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개인생활, 학교생활, 안전과보호 시스템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고 인식한 반면, 놀이와 여가를 위한 공간과 시간 및 프로그램 등은 부족하며 지역사회에서의 아동의 참여, 성인이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태도, 지역주민간의 유대감 및 참여활동 등이 가장 부족하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놀이와 여가를 위한 물리적 환경이 취약하고 아동·청소년의 참여활동이 미진하게 나온 결과는 아동의 고유한 발달적 권리인 놀 권리와 참여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유

니세프의 조사 결과(2010b) 도미니카 공화국의 다하본(Dajabón)시와 요르단의 암만(Amman)시의 아동·청소년은 학교생활, 안전과보호, 놀이와여가를 위한 환경 조성이 가장 최우선으로 필요하다고 선정한 반면, 프랑스 낭시(Nancy)시는 지역사회 참여, 학교생활, 가정환경을 위한 환경 조성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선정하였다. 이처럼 처해있는 환경에 따라 아동의 욕구가 매우 다른 것이다. 본 연구결과 서울시의 아동·청소년은 놀이공간의 확충, 여가시간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프로그램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실질적인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인 13세 아동이 15세 아동 보다, 남아가 여아 보다 도시와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았다. 연령에 따른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연령 아동을 위한 환경이 더 잘 조성되어 있다기 보다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여가를 즐기는 시간이 많고(이재연 외, 2010), 특별활동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많으며, 학교 운동장이나 동네 놀이터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중학교 2학년인 15세 아동은 초기 청소년기로 이 시기는 공격성향이 정점에 달하며 심리 사회적 적응이 매우 불안정한 패턴을 보이는 시기이며(Farrell et al., 2005; Loeber & Hey, 1997), 연령이 증가할수록 권리의 중요성을 높게 지각하고 실제 권리를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에 따라 해석할 수 있다(이재연·강성희, 1997). 또한 남아

가 여아에 비해 모든 영역에 걸쳐 긍정적 인식이 높았는데, 특히 놀이와여가, 안전과보호 영역에서 남아와 여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결과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아의 성장 환경이 보다 취약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실제로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장미혜·윤덕경·안상수 외, 2009), 여아는 평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친구 집을 주요 놀이 공간으로 선택하고 있는 실태 조사가 이를 뒷받침 해준다(이재연 외, 2010). 그러나 예외적으로 학교생활에서는 13세 여아가, 개인생활에서는 15세, 17세 여아의 인식이 남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에 대해 남아보다는 여아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보건복지부, 2009)와 특히 여아들은 청소년기로 넘어가면서 야외 활동이 급격히 떨어지며 집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 조사결과에 따라 해석할 수 있다(이재연 외, 2010). 이에 따라 연령과 성별에 따라 취약한 부분을 파악해 구체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모든 영역에 걸쳐 인구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높고 기반시설, 공공시설이 양호한 경제 수준 상위 구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았다. 또한 경제수준 상위 구는 연령이 낮을수록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대체로 높아 아동이 보다 살기 좋은, 아동 친화적인 환경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경제수준 하위 구는 놀이와여가, 지역사회유대관계 영역에서 아동·청소년의 인식이 부정적이었으며, 특히 신체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난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놀이에 대한 욕구가 가장 강한 연령대 아동이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매우 부족한 것이며, 소득수준과 주거환

경에 따라 향유하고 즐기는 자연공간과 놀이·문화 시설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경제수준 하위 구에서는 아동을 대하는 태도, 이웃 주민 간의 유대감, 지역사회 개선을 위한 노력, 지역사회 활동을 위한 참여 등 응집성, 협력성, 사회적 지지망 등도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매우 주목할 만한 결과로서 지역유대감과 응집력의 경우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보건복지부, 2009)와 일치하며 신도시의 빈곤층이 사회적인 지지망이 사라지고, 이웃과 친인척이 주는 지지를 지역사회 복지관이 대신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곽은숙·정미라, 2007). 따라서 경제수준이 낮은 지역사회는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아동을 대하는 태도, 지역주민 간의 응집성, 협력성 등을 높이는 정책이 생활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지역사회의 경제적 수준 및 기반 시설, 공공시설은 아동 친화적인 지역사회가 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자치구의 예산만이 아동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의 경우 1995년에 현재의 25개 자치구로 구성되었으며, 자치구의 독자적인 재정과 예산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환경을 특성 있게 조성한지 불과 15년 밖에 되지 않았다. 그 결과 자치구만의 특별한 정책과 문화를 만들어 내는데 아직 미숙한 점이 많다. 필리핀의 마닐라(Manila), 세부(Cebu), 다바오(Davao)시는 개발도상국임에도 불구하고 유니세프의 아동 친화적인 도시 만들기 운동(Making Philippine Cities Child Friendly)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영유아의 발달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를 바꿔나가는 적극

적인 노력을 기울였다(UNICEF, 2005b). 이러한 도시의 사례처럼 경제적 수준이 낮아도 자치구와 지방정부의 강력한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아동 친화적인 지역사회와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제도를 넘어선 종합적인 도시계획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아동이 최상의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물리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동영향평가 아래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아동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법률과 제도적 장치가 연계되어야 하며, 아동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1996년부터 아동 친화적인 도시 만들기 운동을 실행하고 있는 이태리의 경우 국가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연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부터 마련하였다(UNICEF, 2005b). 법 제정은 관련 정책을 시스템적으로 실행할 수 있으며 실행내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기존의 아동정책의 서비스 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단계적 공공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동 친화적인 법률 제정이 꼭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 조사의 결과와 선행연구(맹다미, 2009; 서승환, 2005; 이재원, 2006)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생활환경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 서울시는 재산세 공동과세를 도입한 것처럼 지방정부와 국가 차원의 긴밀한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아동과 관련된 예산은 다른 예산과는 달리 공동의 노력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도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최근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조

성(홍승아·김혜영·류연구 외, 2007)', '여성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방안(장미혜 외, 2008)' '서울시 고령 친화도 평가연구(김선자·김경혜, 2009)' 등 지역사회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단위의 환경 재구성 운동은 복잡한 도시 환경 속에서 특별한 욕구를 가진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아동은 노인, 여성과는 달리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보다 특별한 발달적 욕구가 있으며, 아동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취약성 때문에 더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존재이다. 아동의 고유한 발달적 욕구가 왜곡되고 무시된 환경에서 자란 아동은 결코 역량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국가의 인적자본 손실이다. 따라서 아동 친화적인 도시를 위한 핵심 방안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판단하여 기존의 성인 위주의 관점으로 조성되어 있는 환경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은 성인의 '보호'에서 벗어나 '역량'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셋째,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시 아동·청소년은 서울시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요결정 과정에 참여를 거의 하고 있지 않다. 아동의 참여는 아동의 권리실현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다. 이에 따라 아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계획과 설계에 중요한 파트너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이재연·박영애·문혁준, 2010b). 아동 친화적인 도시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이태리, 캐나다, 독일, 호주, 필리핀, 러시아, 벨기에 등 많은 국가들은 아동의 참여를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제시하며 주거환경, 운동장, 공원, 놀이터, 학교 등 도시와 사회의 공간을 재탄생 시키고 있다(UNICEF, 2010b). 이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과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역량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분야에 걸쳐 아동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 친화적인 도시는 일회성 성격의 프로젝트로 성취될 수 없으며, 도시 전체의 시스템이 변화되어야만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는 안전과 보호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극적인 변화가 아닌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역량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적극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국가와 도시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가 아동·청소년이 창의적이고 미래의 역동적인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선자·김경혜(2009). **서울시 고령 친화도 평가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곽은숙·정미라(2007). 저소득층 아동의 주거환경.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지**, 18(3), 149-505.
- 맹다미(2009). **지표로 본 서울시 도시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생활환경 격차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보건복지부(2009).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 실태조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건복지부.
- 서승환(2005). 서울시 자치구별 생활환경의 질에 관한 비교분석. **서울도시연구**, 6(2), 21-36.
- 이미정(2009). **아동성폭력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왕건(2010). 여성과 아동·청소년 친화적 도시경영 전략. **도시문제**, 45, 504.
- 이재연·강성희(1997). 권리에 대한 아동의 인식, 아



- 동권리연구, 1(1), 65-83.
- 이재연·황옥경·이은주(2008).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서울 꿈나무 프로젝트**. 서울: 서울시복지재단.
- 이재연·황옥경·권영임·최창욱(2010a). **제 2기 서울 꿈나무 프로젝트**. 서울: 서울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 이재연·박영애·문혁준(2010b). 아동정책의 현재와 미래, **아동학회지**, 31(2), 1-16.
- 이재원(2006). 서울시 자치구간 지역불균형 특성분석 연구. 경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장미혜·윤덕경·안상수·김영택·이승훈(2008). **여성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방안** 한국여성정책개발원.
- 장미혜·윤덕경·염유식·이승훈(2009).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 I )**. 한국여성정책개발원.
- 홍승아·김혜영·류연구·소마나오코·조순주·진미정(2007). **가족 친화적 지역사회 모형개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Christensen, P., & O'Brien, M. (2003). Children in the city : Home, neighbourhood and Community. Routledge Falmer.
- Farrell, A. D., Sullivan, T. N., Esposito, L. F., Meyer, A., & Vaois, R. F. (2005). A latent growth curve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aggression, drug use, and delinquent behavior and their interrelations over time in urban and rural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5, 179-203.
- Foresight, L. (2007). Trends and Drivers of Obesity : A Literature Review for Foresight Project on Obesity. Foresight : London.
- Freeman, C. (2006). Planning with children and young people for better cities : Routledge Falmer.
- Gill, T. (2008). Space-oriented Children's Policy : Creating Child Friendly Communities to Improve Children's Well-being. *Children & Society*, 22, 136-142.
- Gehl, L. (1996). Growing Up In An Urbanising World, London : UNESCO/Earthscan.
- Houlihan, L. (2005). 'Being young is not child's play : kids are richer but lack life skills', The Daily Telegraph, 7 October.
- MaKendrick, J., Bradford, M., & Fielder A. (2000). Kids custerrmer? commercialisation of playspace and the Commodification of childhood, *Childhood*, 7(3), 295-314.
- Malone, K. (2006). A Key player in a global movement for child friendly cities : Routledge Falmer.
- Malone, K. (2009). Designs for a child friendly city, *Journal of Curriculum Leadership*, 7(2), 45-50.
- Marco, C. (2002). The 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 in Italy. *Environment and Urbanization*, 14(2), 169-179.
- Loeber, R., & Hey, D. (1997). Key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and violence from childhood to early adult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8, 371-410.
- Richard, L. (2006). Last child in the woods : saving our children from Nature-Deficit Disorder. *Children, Youth and Environments*, 16(1), 157-170.
- Riggio, E. (2002). Child Friendly Cities, *Environment & Urbanization*, 14(2), 45-58.
- Shaw, B. (2010). A Poverty of Mobility. Policy Studies Institute; London.
- UN (1992). Agenda 21 : The Rio Declaration and Statement of Forest Principles, New York : United Nations Publication.
- UN (2007). An Urbanizing World. New York : United Nations Publication.
- UNCHS (1997). The Istanbul Declaration and the Habitat II Agenda, Nairobi : UNCHS.
- UNICEF (1990). Plan for Action for Implementing the World Declaration on the Survival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Children in the 1990s, New York : UNICEF.
- UNICEF (1992).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New York : United Nations Publication.

UNICEF (1996). Toward Child Friendly Cities : New York : UNICEF.

UNICEF (1997). Children's Rights and Habitat : Working Towards Child Friendly Cities, New York : UNICEF.

UNICEF (2001). Partnership to Create Child Friendly Cities : Programming for Child Rights with Local Authorities, New York : UNICEF/IULA.

UNICEF (2002). A World Fit for Children, 3 United Nations Plaza : New York.

UNICEF (2005a). Cities with children : Child friendly cities in Italy. Innocenti Research Centre : Florence.

UNICEF (2005b). Making Philippine Cities Child Friendly. UNICEF Innocenti Center : Florence.

UNICEF (2007). Child Poverty in Perspective : an Overview of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UNICEF Innocenti Center : Florence.

UNICEF (2009). Construction of Participatory Self-assessment Tools. The Childwatch international and the Innocenti Center.

UNICEF (2010a). Child Friendly Community Assessment A Facilitator's Guide. UNICEF Innocenti Center : Florence.

UNICEF (2010b). Assessing and Monitoring Child Friendly Communities. UNICEF Innocenti Center : Florence.

---

2010년 12월 31일 투고, 2011년 4월 3일 수정  
2011년 4월 5일 채택